

## 농촌 지역에서 일하자

경남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 거제기독교건강원

정 영 숙

내가 여기 거제도라는 먼곳에 오게 된지도 벌써 7개월이 된다. 내가 여기에 오게된 동기는 어떤 큰 희생정신외 발취에서 온것이 아니고 내가 여고적 소녀시절 부터 꿈 키워오던 이상을 실현 시켜보자는 생각에서 였다. 나는 슈바이처박사를 꺾이나 존경했었다. 그리고 그와함께 일하던 하늘에서 직접 온 천사같은 알리셀버 간호원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었다. 그래서 난 이곳 지역사회 개발원 부속 기독교건강원에 오게 된 것이다. 부산에서 배트 2시간 반을 와야 거제도라는 곳에 닿는다. 처음엔 낯선 경상도, 더구나 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바닷가를 거닐거나 토요일 오후 해가 저물녘 바닷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즐거움이 있어 좋다.

우선 이 병원에 대해 소개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의료제도를 개발할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 의료 선교회의 지원으로 69년에 말죽, 70년 12월 4일에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의료혜택을 못받는 섬주민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결합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어느 병원 보다는 높은 수준의 의료를 베풀고 있는 것 같다. 환자 개개인에게 추후관리가 실행되고 보건 교육이 철저히 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온지 이제 7개월이 지났고 또한 느끼는 점이 많다.

우리네 가난한 섬 주민들의 무지, 빈곤, 질병은 항상 그베토 미뤄려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아직도 이곳 사회에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가 있고, 결핵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위해 보건소에 오픈시간 도보로 찾아가 X-Ray 간접촬영을 하고, 그 결과는 2~3개월이 걸려야 밝혀지고 있다. 또한 진찰만 한번 해보았지 빈곤 때문에 계속 치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여름에 동네아이들의 발가벗은 몸에 Body painting이나 한것처럼 노란 농가진이 여기 저기 번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일도 있었다. 또 정신과 환자를 퐁퐁 묶어 돼지우리 같은 곳에 수년 동안이나 두었던 일이며, 백일해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아이 연령의 숫자만큼 박씨들 실에 예매어 목에 걸고 다니는 일이며 참으로 우리 간호원들의 손과 가르침이 가야 할 곳이 많다.

오늘도 나는 이동 영유아 지도를 하러 산골속에 있는 마을에 갔다 오며 논길을 걸으면서 생각했다. 우리 한국인이 한국인을 생각지 않는다면 누가 생각 하겠는가? 나는 간호원으로서 다른 여러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원들과 간호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하여 보건간호학을 택하셨다는 나의 주임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원들은 간호학교나 간호

대학에 들어갈 때 아무런 철학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신이 간호학을 배웠으면 자기가 간호학을 배우도록 밀받침해준 사회에 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간호원들 중에는

흰 캔을 쓰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간호원이 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우리사회엔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간호학을 배웠고 젊은 여성이고 우리는 양심을 가졌다. 우리네 농어촌 아낙네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능력과 기회와 건강

이 부여되어 있을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이 필요된다.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하와이에 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편지를 보낼때마다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빨리 한국에 돌아와 우리네 농촌아낙네들을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고 되 녀이곤 한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아직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채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자. 인간의 권리로서 누구나 치료받고 싶을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에 협조하자.

### 해외에 계신 회원들께

해외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미국의 여러 주(State Board of nursing)에서 여러분에 대한 개인별 조회서가 본회로 많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현주소가 분명치 않아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초조하게 기다릴 서류들이 한심하게 늦잠을 자는 수가 많습니다. 항상 본회에 주소 변경을 알려주시고 거처를 옮길때에는 늘 이전하는 새 주소를 살던 곳에 남겨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낸 서류가 수취인을 못 찾으면 대략 3~4개월이 지나야 본회로 돌아오므로 그때에는 별수없이 서류를 도기해야 합니다. 특히 평생회원 여러분에게 가는 “대한간호”지가 선편으로 발송후 1~2개월만에 도착되는데 남긴 주소가 없이 떠나버리던 여러분을 찾아온 우편물이 주인을 잃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항상 주소를 쓰실때에는 방호수(Room No.), 층별(Floor), 아파트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